

세계 석유거래 형태의 변화와 제품수입의 확대

1. 석유거래형태의 다양화

石油은 각국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전략 상품인 동시에 세계최대의 무역상품이다. 제2차 석유 위기 이후, 세계 石油 수급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石油

무역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石油무역 형태를 보면 OPEC의존도 감소, 특히 脫中東화가 진행되었다. 자유세계 石油무역중 OPEC(석유수출기구)의 비중은 1979년 74%에서 85년에는 48%로 크게 감소했다.<그림-1> 이러한 감소는 北海, 멕시코, 이

<그림-1> 자유세계 石油무역중 OPEC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B/D)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OPEC 비중 (%)	73.5	69.0	64.1	56.3	51.6	49.8	48.2	51.1
OPEC 수출	28.9	24.8	20.4	16.5	14.5	14.3	13.2	15.7
非 OPEC 수출	9.4	10.0	10.3	11.4	12.0	12.6	12.6	13.1
자유세계 石油무역량	38.3	34.8	30.8	27.9	26.6	26.9	25.8	28.8
공산권으로부터 총수입	1.1	1.2	1.1	1.4	1.6	1.8	1.6	1.9
計 ·	39.4	36.0	31.9	29.3	28.2	28.7	27.4	30.7

<資料> 日本에너지 경제연구소

집트 등 개발도상국, 공산권 등 非OPEC산유국에서의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OPEC의 石油가격이 급락한 1986년 이후는 상승경향을 보였는데, 이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세계3대 石油소비자인 美國, 西유럽, 日本의 石油소비량이 전체석유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79년부터 1985년 사이에 美國이 12%에서 6%로, 서유럽이 58%에서 2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는 76%에서 61%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歐美의 경우는 역내에서의 생산증가와 인근 非OPEC국가에서의 수입 증가로 장거리 탱커 수송이 필요한 中東원유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

고, 日本의 경우는 멕시코, 中東, 말레이시아 등 새로운 공급원에서의 수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양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中東산유국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그림-2>

<그림-2> 中東 石油의존도 비교

(단위 : %)

	日 本	西 유럽	美 國
1979	76	58	12
1986	61	29	6

<資料> BP통계

石油무역면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래형태가 매우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原油는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의한 거래였기 때문에 산유국에서 메이저를 통해 수입국 정유회사로 판매되는 스파트거래의 비중은 5% 미만으로 매우 작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수의 거래자가 原油와 제품의 거래에 개입, 계약형태도 GSP(정부판매가격)를 적용하는 기간 계약보다도 시장연동형기간계약(2~3개월)내지는 Cargo 별 스파트계약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OPEC산유국에서 수출용 정유공장이 본격 가동을 개시했고, 싱가포르와 이탈리아 등에서 위탁정제(산유국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원유정제를 의뢰하는 방법)가 확대됨에 따라 OPEC 회원국들은 국제석유시장에 제품형태의 수출을 계속 늘려왔다. 더우기 공산권을 포함한 국가들과 무기, 식량품, 공업제품과 석유의 바터거래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결과 작년 가을에는 OPEC회원국의 石油수출중 GSP에 의한 판매량은 전체의 약 1/3로 되었다. 특히 작년말

부터 금년도 1/4분기에 걸쳐 공급과잉에 따른 시황침체로 18달러 고정가격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원유의 스파트 가격 연동형태의 거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2. 石油製品무역의 확대

1970년대말부터 80년대 전반에 걸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부다비,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의 OPEC산유국에서는 수출용 정유공장 건설이 큰 붐을 이루었는데, 이같은 추세는 자국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동시에 OPEC의 가격협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서방측으로부터 외화수입을 늘리고 싶은 소련도 原油보다 제품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79년부터 1986년 사이에 자유세계 原油 수출량은 3천만%에서 2천만%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510만%에서 650만%로 증가했다.

〈그림-3〉 지역별 제품수입 추이

(단위: 천 B/D)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美 國	2,525	2960	2,650	1,920	2,010	2,145	1,995	1,935	1,515	1,555	1,580	1,685	1,980	1,715	1,840
西 欧 諸 國	780	740	850	930	1,035	1,070	1,165	950	1,435	1,380	1,635	1,775	1,820	1,960	1,845
日 本	690	760	605	380	610	625	585	675	550	505	510	565	615	690	805
기 타	1,315	1,210	1,170	1,420	1,715	1,400	1,190	1,560	1,890	1,765	1,745	1,495	1,600	1,595	1,999
세 계 計	5,310	5,670	5,275	4,650	5,370	5,240	4,935	5,210	5,390	5,205	5,470	5,520	6,015	5,960	6,490

〈그림-4〉 세계 原油수입 추이

(단위: 천 B/D)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24,785	28,460	28,055	25,685	28,930	29,515	29,155	30,230	26,545	23,450	20,095	18,835	18,735	18,150	19,775

日本の 경우를 보자. OPEC회원국으로부터 제품수출 압력이 높아지면서 산유국 뿐만 아니라, 歐美각국들로부터도 日本의 석유제품수입 자유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또 日本은 석유산업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내외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1985년 12월에는 「특정 석유제품 수입잠정 조치법」을 제정, 종전부터 수입되던 나프타, 중유에 덧붙여 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해서도 사실상 석유

정제회사가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日本의 제품 수입은 크게 늘어나 1987년에는 연료유 수요 전체의 22%에 이르렀다.〈그림-5〉 1982년 이후 이미 수입자유화가 진행된 나프타의 87년 수입비율은 73%에 달했고, B-A油, B-C油는 8%, 15%, 휘발유, 등유, 경유는 각각 11%, 23%, 14%로 상당한 비율이 되었다. 이와같은 日本의 제품수입비율은 歐美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

이다. 1986년의 수입비율을 보아도 LPG를 포함한 제품 수입이 미국 12%, 西유럽 15%인데 비해 일본은 18%로 가장 높다.

그러면 석유제품 무역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일까.

산유국의 제품수출능력을 보면 수출용 정유공장 붐이 일 단락 되었고, 산유국에서의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상당한 정제시설 과잉상태이고 각 제품

〈그림-5〉 日本의 석유제품 수입 추이

(단위 : 천 KI)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휘발유	-	-	-	-	531	3,665	4,190
나프타	7,414	10,031	13,797	14,006	14,762	17,574	20,039
등유	1,198	4	-	-	1,010	3,242	6,012
경유	568	57	-	-	238	1,225	4,038
B-A油	1,355	1,466	1,609	1,775	1,859	1,734	1,022
B-C油	6,017	5,482	5,638	5,438	5,779	5,277	5,389

의 수급상황 및 가격차에 따라 싱가포르, 지중해, 카리브해 등 소위 중간지 정유공장과 日本, 美國, 유럽등 소비국의 제품수출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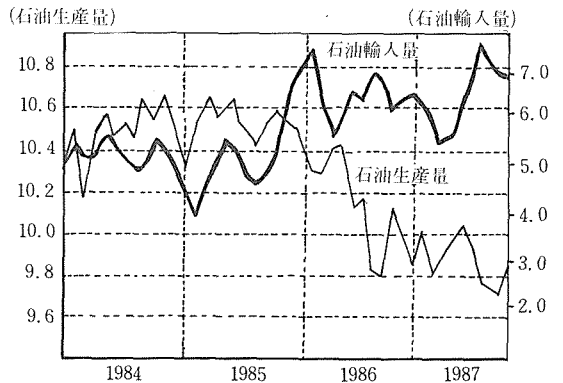
3. 美國의 石油수입

세계적으로 石油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약해지고 또 OPEC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石油무역도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美國의 石油수입 동향이다.〈그림-6〉 1986년의 原油가격급락을 계기로 국내 石油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中東산유국으로 부터의 石油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로 인해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남부 산유주의 독립계 석유업자와 시추회사는 큰 타격을 받아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석유산업의 보호와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石油에 높은 관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레이건 정권은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보호정책에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石油수입 관세가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림-6〉 美國의 석유 생산량과 석유 수입

(백만 B/D)



〈資料〉 美國 석유협회 (API) 자료

그러나 금년 11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앞으로도 石油수입의 증가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石油수입세 문제는 차기정권 하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커다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美國의 입장에서 石油수입세는 유력한 재원의 하나인 것이다. 만약 앞으로 美國이 대폭적인 수입세를 부과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산유국과의 대립이 심해지고 세계 석유무역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이데미쯔誌〉